

‘무엇’에서 ‘어떻게’로: 데이비드 스미스의 기독교적 교수론에 기초한 초등 사회과 ‘법과 인권’ 단원의 핵심 차시 재구성*

Reconstructing a Key Lesson in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Unit “Law and Human Right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Drawing on David Smith’s Christian Pedagogy

김수정 (Soojung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unit Law and Human Rights and reconstructs a key lesson on developing human-rights-friendly attitude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wo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based o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were analyzed, with the teacher’s guide published by Visang Education used as a supplementary source. The analysis found that th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 present being human itself and the universal possession of rights from birth as normative starting points for human rights, and connect these ideas to respect for the rights of others and self-reflection. However, they do not treat the philosophical or religious grounding of why being human itself entails equal dignity and rights as a separate object of inquiry. Within the context of Christian schooling, this study therefore interprets human dignity through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imago Dei* and reconstructs the key lesson using the three facets of What If Learning—seeing anew, choosing engagement, and reshaping practice. The redesigned lesson incorporates gradual slow looking through a picture book, a structured listening process of speaking-listening-restating-confirming, intentional waiting time and formative assessment, follow-up activities that connect personal kindness with the language of rights, and a closing movement of commitment and blessing. The key activities were preliminarily implemented in an actual fifth-grade classroom to examine their feasibility and procedural clarity; however, no empirical claim is made regarding changes in students’ understanding of human dignity or their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The study suggests that Christian curriculum

* 2026년 8월 4일 접수, 9월 7일 최종수정, 9월 8일 게재확정

** 한동글로벌학교(Handong International School) 초등 국어·사회 교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글로벌학교.
soojungkim@his.sc.kr

reconstruction need not be limited to adding theological content to existing subject matter, but can also involve redesigning the pedagogical forms through which students see, listen, wait, and participate in light of a Christian vision of human dignity.

Key words: elementary social studies, human rights education, *imago Dei*, Christian pedagogy, What If Learning, lesson reconstru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등 사회과 ‘법과 인권’ 단원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보편성을 학습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존중 태도로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고, 인권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제시한 뒤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연결한다(설규주 외, 2026a: 116-117). 이러한 서술은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와 출생부터의 보편적 귀속을 인권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게 하는가’라는 철학적·종교적 물음까지는 학생용 교과서에서 별도의 학습 내용으로 탐색되지 않는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러한 물음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신학적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탐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인권의 정초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편적으로 우월한 논증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을 공유하는 교육 공동체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석하는 하나의 신학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적 내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수업이 기독교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Smith, 유은희 역, 2024)는 기독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뿐 아니라 학생이 어떤 방식으로 보고, 듣고, 참여하며 관계를 맺는가와 같은 교수·학습의 양식에도 신앙적 가치가 구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 존엄에 관한 기독교적 수업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국내 기독교교육 연구에서도 내용 재구성에 비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경향이 확인된다. 이은실(2013)은 관련 석사학위논문 56편 중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명시한 연구가 6편에 그쳤음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박혜경(2016), 유은희(2023) 등은 기독교적 교수·학습의 양식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이어 왔다. 한편 장유정(2023)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2016년 이후, 특히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하여, 이를 실제 수업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개념적 이해가 생활 속 태도로 전환되는 ‘인권 친화적 태도’ 관련 핵심 차시를 직접적인 재구성의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분석 대상 교과서가 인간 존엄과 인권의 근거를 어떻게 서술하고, 이러한 설명이 존중의 태도와 학습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비상교육 교사용 지도서가 이를 어떻게 보충하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스미스가 참여한 What If Learning의 ‘새롭게 보기(seeing anew)’, ‘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 ‘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를 활용하여 ‘인권 친화적 태도’ 핵심 차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고 이를 예비적으로 현장에 적용한 설계 연구이다. 주된 분석 대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비상교육 초등 사회 5-1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이며, 동일 교육과정의 아이스크림미디어 교과서를 대조 자료로 검토하였다. 단원 전체를 분석의 맥락으로 삼되 직접적인 재구성 대상은 비상교육 교과서 116~125쪽, 특히 인권에 관한 개념 학습에서 ‘인권 친화적 태도’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비상교육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동등한 분석 자료로 코딩하지 않고, 학습 목표와 교수 의도, 보충 개념 설명 및 활동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과서 분석에서는 완결된 문장 또는 의미상 긴밀하게 연결된 문장 묶음을 의미 단위로 보고, ① 인간 존엄과 인권의 근거, ② 설명에서 존중의 당위로의 연결, ③ 학습자의 참여 방식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두 학생용 교과서의 관련 단원을 통독하여 의미 단위를 확인하고 이를 세 분석 영역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진술이 앞뒤의 설명 및 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비교하였다. 이후 비상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검토하여 학생용 교과서에 대한 해석이 지도서의 학습 목표 및 보충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의 구체적인 준거와 절차, 자료와 해석의 대응은 III장에서 제시한다.

수업 재구성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신학적 논의와 스미스의 기독교적 교수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What If Learning의 세 국면을 중심으로 기존 교과서 활동을 재해석하였다. 재구성한 핵심 활동은 2026년 6월 11일 초등학교 5학년 「법과 인권의 보장」 9~10차시(80분)에 예비적으로 적용하였다. 실제 수업에서는 교과서 내용 확인, 《위를 봐요!》를 활용한 느린 보기,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신학적 해석, 경청, 자기 점검과 실천, 다짐과 축복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적용은 학생의 인권 인식이나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아니라, 재구성안의 실행 가능성과 활동 절차를 예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 적용을 근거로 교육적 효과를 주장하지 않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스미스의 기독교적 교수론: ‘무엇(What)’에서 ‘어떻게(How)’로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과 교과의 통합은 오랫동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교과 내용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거나 성경적 가치를 연결하고, 신앙적 인격을 갖춘 교사가 그것을 전달하는 일이 기독교적 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스미스(Smith, 유은희 역, 2024)는 여기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한다. 그에게 가르침은 전달되는 내용(what)과 교사의 성품만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과제를 제시하고 시간을 사용하며 공간을 배치하고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구체적인 페다고지(pedagogy) 자체가 신앙적 가치와 인간 이해를 드러내는 장이다. 따라서 ‘무엇’에서 ‘어떻게’로의 이동은 내용을 포기하거나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적 비전이 교수·학습의 양식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스미스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 은유가 ‘페다고지컬 홈(pedagogical home)’이다(Smith, 유은희 역, 2024: 63). 그는 교사를 학생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성장하는 ‘집’을 구성하는 사람에 비유한다. 이 집이 환대하는 공간인지 배제하는 공간인지, 학생의 말을 기다리는지 서두르는지, 경쟁을 부추기는지 서로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지는 단순한 교수 기술의 차이를 넘어 학생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는가와 관련된다. 이런 점에서 수업은 가치중립적인 기술의 집합이 아니며, 교사가 던져야 할 질문 역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된다(Smith, 유은희 역, 2024: 92). 신앙은 교과 목표에 별도로 덧붙여지는 내용이 라기보다 수업의 시간·공간·과제·상호작용을 어떤 방향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설계의 틀(framing)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은 스미스가 참여한 What If Learning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보기(seeing anew)’, ‘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 ‘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라는 세 국면으로 구체화된다(Smith, 유은희 역, 2024: 166 ; 유은희, 2023). ‘새롭게 보기’는 익숙한 교과의 내용과 활동을 기독교적 비전 안에서 다시 상상하는 것이며, ‘참여 방식 선택하기’는 그 비전에 비추어 학생이 학습에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실천 재구성하기’는 이러한 참여를 지탱하도록 시간, 공간, 자료, 과제, 교사의 몸짓과 같은 수업의 실제 조건을 재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국면은 순서대로 적용되는 고정된 절차나 보편적 교수 원리라기보다, 기독교적 비전과 실제 교수·학습의 양식을 연결하여 성찰하기 위한 서로 연관된 관점이다.

스미스가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수업을 재구성한 사례는 이러한 접근이 실제 교수 활동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실존하는 구체적인 ‘사람(people)’, 정보 전달을 넘어서는 ‘이야기(narrative)’,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도덕적 중요성(moral significance)’, 그리고 성급한 판단을 늦추고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세심한 주의(attentiveness)’를 환대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교수적 접점으로 활용한다(Smith, 유은희 역, 2024: 140-150). 이 요소들은 모든 기독교적 수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설계 원리라기보다, 특정한 주제를 기독교적으로 다시 상상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구체적인 교수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백장미단의 사진을 활용한 사례는 본 연구와 밀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미스는 학생들이 이 사진 속 인물을 처음부터 특정한 정보나 범주로 판단하도록 하지 않고, 사진의 주변 환경과 사람, 표정과 관계를 차례로 자세히 관찰하도록 하며 판단의 속도를 늦춘다(Smith, 유은희 역, 2024: 144-150).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진이라는 특정 자료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눈앞의 대상을 얼마나 주의 깊게 보고 성급한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 그림책 《위를 봐요!》의 삽화를 단계적으로 관찰하도록 구성한 ‘느린 보기’는 이 사례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가 실제 학습의 참여 방식 속에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적 시사점을 얻은 것이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역시 스미스에게 중요한 교수적 요소이다. 질문을 던진 뒤 곧바로 빠른 답을 요구하는 수업에서는 말이 빠르고 자신 있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참여의 중심을 차지하기 쉽다. 반면 교사가 의도적으로 기다림(wait-time)을 확보하면 머뭇거리거나 생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발언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스미스는 이러한 기다림을 단순한 수업 기법을 넘어 학생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관련된 정의의 실천으로 이해한다(Smith, 유은희 역, 2024: 262-265). 또한 학습의 끝을 시험과 결과 확인으로만 닫지 않고 축복과 위임의 시간으로 재상상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수업의 시작과 활동뿐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과 마무리의 방식까지도 학생이 경험하는 페다고지의 일부임을 보여 준다.

반대로 기독교적 내용을 기존 수업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수업의 양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스미스가 소개하는 ‘던의 수학 수업’에서는 기독교적 인물과 짧은 신앙적 내용을 수학 자료에 추가했지만 학생이 문제를 풀고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Smith, 유은희 역, 2024: 181-182). 이 사례의 의미는 기독교적 내용을 교과에 연결하는 시도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내용의 변화가 그것을 배우는 참여 방식과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독교적 비전과 수업의 실체가 서로 정합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국내 기독교교육 연구에서도 이러한 교수·학습 양식에 대한 관심은 확인된다. 이은실(2013)은 기독교 교육과정 개발·재구성 관련 석사학위논문 56편을 분석하여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명시적으

로 제시한 연구가 6편에 그쳤음을 보고하면서, 교육과정의 기독교적 재구성이 내용의 변환뿐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의 설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내 기독교교육에서 ‘어떻게’에 관한 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기보다, 내용 재구성에 비해 교수설계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박혜경(2016)은 Van Brummelen의 기독교적 교수 접근을 토대로 ‘지도하기(guiding)·구조화하기(structuring)·펼쳐 보이기(unfolding)·능력 부여하기(enabling)’를 실제 수업과 연결하여 교수·학습의 과정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성찰하였다. 유은희(2023) 또한 스미스의 논의를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하면서, 가르침을 단순한 교수 기법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해석한다. 장유정(2023)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의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2016년 이후, 특히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한 점도, 신앙과 교과 통합을 구체적인 교수 실천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는 What If Learning의 세 국면을 활용하여 초등 사회과의 특정 차시에서 기독교적 비전이 실제 학습자의 참여 방식과 수업 환경으로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인간 존엄의 신학적 근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스미스의 교수론이 기독교적 비전을 수업의 ‘어떻게’ 속에 구현하는 문제를 다룬다면, 본 연구의 인권 수업에서는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라는 신학적 물음도 함께 요청된다. 교과서가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제시하는 인간 존엄의 보편성은 인권교육의 중요한 출발점이며, 기독교 학교에서는 이 진술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관한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다. 창세기 1:27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 제시하며,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고유한 존엄과 책임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신학적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존엄과 연결할 때 중요한 것은 이를 인간이 소유한 특정한 능력으로 단순화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이성, 자율성, 언어 능력, 생산성이나 사회적 유용성과 직접 연결한다면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발현하기 어려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경건(2018)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인간 이해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인간의 지능이나 기능이 기술적으로 모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의 논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기능적 탁월성으로 환원하지 않도록 하며, 인간의 가치를 능력과 성취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인간 이해를 성찰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관계적 이해도 본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홍순원(2015)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 고립되어 존재하는 하나의 속성으로만 보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회윤리적 정체성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의 전형이자 인간성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존엄을 개인이 소유한 추상적 속성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존엄한 타자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물음으로 확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왜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존엄한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서로 연결하는 신학적 자원이 된다.

다만 관계적 이해가 인간의 관계 수행 능력 자체를 존엄의 조건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 및 이웃을 향한 관계성을 서로 분리된 두 단계로 보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인간 이해가 지닌 상호 연관된 차원으로 본다. 인간의 존엄은 특정한 관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으며, 관계를 표현하는 능력이 제한된 존재 역시 동일하게 존엄한 인간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은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요청되는 사랑과 책임의 방향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관계는 존엄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 존엄한 인간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연결된다.

이러한 이해는 본 연구의 인권 수업에서 존엄과 경청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학생이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며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해야 비로소 존엄한 인간이 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이 이미 존엄한 인간이라는 이해가 그를 바라보고 듣고 대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요청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신학적 내용과 느린 보기·경청과 같은 교수 활동은 ‘내용’과 ‘방법’으로 기계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는 비전은 그 인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교수적 실천의 방향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인간 존엄 이해는 동시에 그 자체의 전제를 지닌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에 관한 신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설득력을 갖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논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개념 자체도 기독교 신학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으므로, 이를 하나의 단순한 명제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인간 존엄의 철학적 정초를 배제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보편적 논증으로 제시하지 않고, 기독교 학교라는 특정한 해석 공동체에서 인간 존엄을 이해하고 가르치기 위한 신학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스미스의 기독교적 교수론은 각각 별개의 요소를 담당한 뒤 결합되는 두 개의 독립적 장치라기보다 서로 연관된 비전과 교수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학습자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신학적 관점을 제공하며, 스미스의 교수론과 What If Learning은 그러한 관점이 학생의 실제 학습 경험 속에서 어떤 참여와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천천히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끝까지 듣는 것, 말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 존엄과 권리의 언어로 공동체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인간 존엄에 관한 신학적 진술과 동떨어진 교수 기술이 아니라, 그 비전이 수업의 양식과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III장에서는 교과서의 인권 서술을 살펴보고, IV장에서는 이를 What If Learning의 세 국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업 양식으로 재구성한다.

III. 초등 사회과 ‘법과 인권’ 단원의 인권 서술 분석

1. 분석의 대상·단위·준거와 절차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비상교육 초등 사회 5-1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이다. 단원 전체를 분석의 맥락으로 삼되, 직접적인 재구성 대상인 교과서 116~125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일 교육과정에 따른 아이스크림미디어 초등 사회 5-1의 해당 단원은 주 자료에서 나타난 서술 방식이 특정 출판사에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비상교육 교사용 지도서는 학생용 교과서와 동등한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학생용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교수 의도, 개념에 관한 보충 설명 및 활동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의 기본 단위는 인권의 정의와 근거, 존중의 태도 또는 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의미상 연결된 한 문장 또는 긴밀하게 연결된 문장 묶음인 ‘의미 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준거는 II장에서 논의한 인간 존엄에 관한 이해와 스미스의 교수론을 바탕으로, 인권이 어떻게 설명되는가와 그 설명이 어떠한 학습 참여로 이어지는가를 함께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① 인간 존엄과 인권의 근거, ② 설명에서 존중의 당위로의 연결, ③ 학습자의 참여 방식의 세 영역을 설정하였다.

표 1(Table 1). 교과서 인권 서술의 분석 준거

분석 영역	핵심 질문	주요 분석 내용
인간 존엄과 인권의 근거	인권은 무엇이며, 왜 모든 인간에게 귀속되는가?	인권의 정의, 존엄의 이유, 법·헌법에 의한 인권 보장의 방식
설명에서 존중의 당위로의 연결	인권에 관한 설명은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인권의 보편성 진술, 존중의 필요성, 태도에 관한 규범적 진술
학습자의 참여 방식	학생은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점검하는가?	개념 확인, 사례 판단, 자기 점검, 관찰·경청, 표현·실천

분석은 먼저 두 학생용 교과서의 해당 단원을 통독하여 인권의 정의와 인간 존엄, 인권 존중의 태도 및 관련 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의미 단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앞서 제시한 세 분석 영역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진술을 앞뒤의 서술 및 활동과 함께 읽어 인권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중의 태도와 학습 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두 교과서에서 확인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비상교육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사용 지도서의 해당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여 학생용 교과서의 개념 설명과 활동의 교육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지도서의 설명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주요 해석에는 해당 교과서의 원문과 쪽수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분석 준거에 따른 주요 교과서 자료와 분석 결과의 대응을 표 2(Table 2)에 제시하였다.

표 2(Table 2). 주요 교과서 자료와 분석 결과의 대응

분석 영역	주요 교과서 자료	분석 결과
인간 존엄과 인권의 근거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설규주 외, 2026a: 116);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117)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와 출생부터의 보편적 귀속을 인권의 기초로 제시한다. 다만 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엄과 권리를 갖게 하는지에 관한 철학적·종교적 정초까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설명에서 존중의 당위로의 연결	“인권은 ...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며, “따라서 ...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117)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으로 직접 이행한다.
학습자의 참여 방식	‘인권 친화적 태도 점검하기’에서 도움, 따돌림, 강요, 차별, 언어 사용, 물건 존중, 경청, 개인정보와 관련된 8개 항목에 자신을 점검함(124)	구체적인 학교 생활 상황을 통해 인권 존중을 자기 삶과 연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방식은 자기 점검과 성찰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경청’ 역시 점검 항목으로 제시되지만, 타인의 생각을 실제로 듣고 재진술하는 상호작용 구조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교육 교사용 지도서는 인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로 설명하여 학생용 교과서의 서술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충한다(설규주 외, 2026b: 229). 또한 인권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동반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교과서와 지도서가 인간 존엄의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권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제시하면서도, 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게 하는가라는 철학적·신학적 물음까지는 별도의 학습 내용으로 탐색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과 해석은 연구자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복수 연구자의 독립적인 분석을 통한 검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대조 교과서가 한 종이고 교사용 지도서의 검토도 비상교육 자료에 한정되므로, 이를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본 분석은 특정 교과서에 기초한 수업 재구성을 위한 문서 분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2. 단원의 구성과 인권 서술

비상교육 초등 사회 5-1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은 법의 의미와 역할에서 출발하여 인권과 헌법의 관계,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구현, 인권 친화적 태도로 이어지고, 이후 인권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 및 인권 보호 활동으로 확장된다. 본 연구가 직접 재구성하는 부분은 이 가운데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인권 친화적 태도로 전환되는 116~125쪽이다.

교과서 116쪽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제시한 후 “서로의 모습이나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설규주 외, 2026a: 116)고 설명한다. 이어 인권을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설규주 외, 2026a: 116)로 정의한다. 117쪽에서는 인권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설명하고, 성별·피부색·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무시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고 밝힌다(설규주 외, 2026a: 117). 그리고 곧바로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연결한다.

따라서 교과서가 인간 존엄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와 출생부터의 보편적 귀속을 인권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 자료인 아이스크림미디어 교과서 역시 인권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보편적 권리로 설명한다(한춘희 외, 2026: 123). 다만 두 교과서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라는 진술 자체를 넘어 왜 인간이라는 사실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요청하는가라는 철학적·종교적 정초를 별도로 탐색하

지 않는다. 이는 초등 교과서의 결함을 단정하기보다는, 본 연구가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한 단계 더 탐구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용 지도서 역시 이 해석을 뒷받침하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지도서는 인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국적·종교·성별·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로 설명한다(설규주 외, 2026b: 229). 이는 학생용 교과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진술을 보다 분명하게 풀어 준다. 그러나 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존엄과 권리를 갖게 하는지에 관한 철학적 또는 신학적 논증까지 전개하지는 않는다. 지도서에는 실제로 인권의 보편성과 더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한편 교과서에서 헌법과 법은 인간 존엄을 발생시키는 원천이라기보다 인권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생활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로 교과서는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평등·사회복지·정치 참여 등의 권리가 실생활에서 보장된다고 설명한다(설규주 외, 2026a: 118-1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 존엄의 정초와 이를 보호하는 법적·제도적 보장의 역할을 구분하여 이해한다. 교과서는 특히 헌법 제10조에서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이어 실제 생활에서 권리가 보장되는 사례를 다룬다.

123~125쪽에서는 개념적 설명이 인권 친화적 태도의 학습으로 이동한다. 특히 124쪽은 도움, 따돌림, 강요, 차별, 언어 사용, 다른 사람의 물건, 경청, 개인정보에 관한 8개 항목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도록 한다(설규주 외, 2026a: 124). 그 가운데 “친구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해도 잘 들어 준다”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교사용 지도서 역시 이 활동을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생활과 연결하여 자신의 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점을 성찰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성찰 일기로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설규주 외, 2026b: 226). 따라서 본 연구의 재구성은 기존 교과서에 경청이나 성찰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경청 자체를 수업의 실제 참여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결국 분석 대상 교과서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따른 보편적 존엄에서 출발하여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자기 성찰로 나아가는 비교적 일관된 흐름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 구조를 부정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진술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깊이 탐색하고, 교과서가 이미 제시한 존중·경청·성찰을 실제 수업의 참여 방식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3. 인간 존엄의 정초와 인권교육의 과제

앞선 분석에서 확인했듯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권의 보편적 귀속과 존엄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교과서가 인간 존엄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왜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게 하는가’라는 물음이 별도의 철학적·신학적 탐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물음에는 기독교적 설명 외에도 다양한 철학적 응답이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러한 논의의 지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칸트(Kant)의 전통은 인간의 이성적 자율성과 도덕성에서 존엄을 설명한다. 강현정(2007: 9-10)에 따르면 칸트에게 인간은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는 점에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존엄은 실제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도덕적 존재일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이는 인간 존엄의 강력한 철학적 정초를 제공한다. 다만 존엄의 정초를 특정 능력이나 속성과 연결할 경우 그러한 능력을 현재적으로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인간의 존엄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는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칸트적 인간 이해가 그러한 인간의 존엄을 곧바로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속성을 존엄의 근거로 해석할 때 요청되는 철학적 과제이다.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는 접근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합의와 헌법은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보호하는 핵심적 조건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법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법과 합의를 넘어 이를 평가할 규범적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남는다. 따라서 법·제도는 인권의 실효적 보장에 필수적이지만 인간 존엄의 철학적 정초와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간 존엄의 정초 자체가 지닌 이러한 난점은 관련 연구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김용해(2003)는 실체주의, 인격주의, 실용주의, 기능주의, 신 모상설 등 여러 존엄 정초 논변을 검토하면서 각 입장이 서로 다른 인간 이해와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간 존엄의 철학적 근거 지음이 단순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는 나아가 인간 존엄을 신-인간-자연의 관계라는 통합된 세계관과 연결하며, 존엄의 근거 물음이 종교적·형이상학적 차원과도 관련된다고 본다. 강현정(2007: 20) 역시 인간 존엄의 문제를 형이상학적·종교적 물음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한 하나의 정초가 다른 모든 정초를 무효화한다기보다, 인간 존엄의 근거 물음이 서로 다른 인간 이해와 세계관의 전제를 포함하는 문제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느 한 접근의 우위를 확정하기보다, 각 접근이 제시하는 설명과 남기는 물음을 함께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본 연구는 기독교 학교라는 교육적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존엄을 해석하기 위한 신학적 관점으로 채택한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f)는 인간이 권리를 갖는 근거를 특정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지니는 가치에서 찾으며, 그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한다(Wolterstorff, 2008: 10-11, 21 ; Weithman, 2009: 180에서 재인용). 특히 그의 논의에서 인간의 가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참조에 의존하지 않는다(Wolterstorff, 2008: 352 ; Weithman, 2009: 185에서 재인용). 이는 인간의 존엄을 능력·성취·유용성의 정도와 직접 연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인간 이해와 중요한 접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설명 역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 모든 담론에서 동일한 설득력을 갖는 보편적 논증으로 제시될 수는 없다. 김용해(2003: 241-249)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인간 존엄의 근거 지음을 종교와 문화 간의 개방적 대화 속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 것도 이와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하나님의 형상을 채택하는 이유는 다른 정초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학교라는 해석 공동체에서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서이다.

이 문제는 인간 존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적 과제로 이어진다. 교과서는 인권의 보편성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학교생활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 점검의 교육적 의의는 분명하다. 그러나 존중과 경청을 규범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과, 실제 수업에서 타인의 말을 듣고 기다리며 자신의 이해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구별될 수 있다. Blasi(1999: 1)는 도덕적 이해 자체만으로 도덕적 동기와 행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발전된 이해를 가지고도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도덕적 행동과 감정은 ‘도덕성에 대한 관심(concern for morality)’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Blasi, 1999: 13, 15-16).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교과서의 자기 점검 활동이 학생의 행동 변화에 불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인간 존엄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태도의 성찰이 실제 학습자의 참여 방식과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재구성은 교과서가 제시하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존중·경청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 이해를 통해 그 의미를 심화하고 이를 실제로 보고, 듣고, 기다리고 관계 맺는 교수·학습의 양식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What If Learning의 ‘새롭게 보기-참여 방식 선택하기-실천 재구성하기’의 세 국면에 따라 제시한다.

IV. 기독교적 관점에 따른 ‘인권 친화적 태도’ 차시 재구성

1. 재구성의 방향

III장의 분석은 두 가지 과제를 남긴다. 하나는 교과서가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제시하는 인간 존엄의 규범적 출발점을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보다 깊이 탐색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인간 이해가 학습자에게 단순한 명제로 전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업의 참여 방식 속에서 경험되도록 설계하는 일이다. 본 연구의 재구성은 이 둘을 결합한다. 전자는 인간 존엄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심화이며(II-2), 후자는 What If Learning의 ‘새롭게 보기(seeing anew)’, ‘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 ‘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를 통해 수업의 시간·활동·상호작용과 교수 환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II-1).

이 결합에서는 내용의 재해석이 새로운 명제의 주입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재구성이 교과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진술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새 문장으로 바꾸어 넣는 데 그친다면, 학습자에게는 다시 외워야 할 하나의 정답으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재구성의 무게중심은 정의의 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한 사람을 ‘점’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의 말을 듣는 참여의 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다. 곧 무엇을 가르치느냐(*imago Dei*)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느린 보기·경청·기다림·축복)와 분리되지 않는다.

재구성은 단원을 폐기하고 새 내용을 들여오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단원의 골격을 유지하되 그 양식을 다시 짜는 방식을 취한다. 교과서의 도입(인권·헌법·인권 친화적 태도 읽기)은 그대로 두고, 교과서가 이미 갖추고 있는 ‘인권 친화적 태도 점검하기’ 활동도 폐기하지 않은 채 그 의미를 다시 부여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교육 교과서를 존중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단위 재구성의 성격에 부합한다. 핵심 교구로는 정진호(2014)의 그림책 《위를 봐요!》를 활용한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주인공 수지가 높은 곳에서 거리를 내려다볼 때 아래 사람들의 모습은 정수리만 보이는 점처럼 그려지고, 아무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다가 한 아이가 길에 누워 올려다보는 순간 흑백의 화면이 분홍빛으로 바뀌는 이 이야기는, ‘시선의 위치’가 곧 한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한다는 본 단원의 주제를 형상화한다. 그림책을 인권 교육의 핵심 자료로 삼는 접근에는 선행 사례가 있다. 이서영(2023)은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 읽기를 ‘설명하기 — 이해하기 — 적용하기’의 세 단계로 구조화하여, 학습자가 그림에서 보이는 것을 살핀 뒤 보이지 않는 의미를 묻고 다시 자기 삶으로 나아가며 공감적 상상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기르도록 설계한 바 있다. 나아가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

교육이 학습자의 인권 인식에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유아 대상 실증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박경애·이경주, 2020). 본 연구의 단원이 느린 보기에서 시선의 전환으로, 다시 친절과 권리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흐름 또한 이러한 단계적 읽기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다만 이 그림책을 다룰 때에는 교육적 세심함이 요구된다. 작품이 사고로 다리를 잃은 인물을 그리는 만큼, 학급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사고·상실을 경험한 학생이 있을 경우 이 수업이 의도와 달리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지를 ‘극복해야 할 결핍을 지닌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그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야기의 초점을 인물의 손상 자체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이 한 존재를 어떻게 다시 보게 하는가에 둔다. 장애나 사고는 한 사람을 규정하는 본질이 아니라 그가 처한 하나의 상황이며, 시선의 전환 활동은 한 존재를 조건이나 외형으로 성급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교사는 창세기 1:27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인간의 존엄을 특정한 능력이나 유용성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신학적 해석과 연결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존엄을 능력이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 짓는 본 연구의 관점과도 일관된다.

앞서 논의한 재구성의 방향을 What If Learning의 세 국면에 따라 정리하면 표 3(Table 3)과 같다. 표 3은 ‘새롭게 보기’, ‘참여 방식 선택하기’, ‘실천 재구성하기’를 중심으로 기존 교과서의 내용 및 활동과의 연결 지점을 확인하고, 각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재구성의 내용과 이를 지탱하는 수업의 장치 및 확인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표 3(Table 3). What If Learning에 따른 핵심 차시 재구성의 개관

What If Learning 국면	기존 교과서와의 연결	재구성 내용	참여를 지탱하는 장치 및 확인
새롭게 보기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인권의 보편성, 인권 친화적 태도	《위를 봐요!》 삽화를 단계적으로 관찰하고 한 사람을 ‘점’이 아닌 구체적 존재로 다시 보기. 관찰 후 창세기 1:27을 통해 인간 존엄을 신학적으로 해석	삽화 단계적 공개, 질문 후 기다림, 관찰 기록, 교사의 명시적 설명
참여 방식 선택하기	교과서의 ‘반대되는 의견도 잘 듣는다’는 경청 항목	짝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재진술한 뒤 상대방에게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기	말하기-듣기-재진술-확인 상호작용 절차, 짝의 확인
실천 재구성하기	자기 점검과 생활 속 인권 존중	자기 점검을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하고, 후속 활동에서 시혜의 언어를 권리의 언어로 전환	10초 기다림, 경청 절차, 활동지·포스터, 과정중심 피드백, 다짐과 축복으로 마무리

2. 새롭게 보기: 한 사람을 ‘점’이 아닌 존재로 보기

What If Learning의 첫 번째 국면인 ‘새롭게 보기(seeing anew)’는 익숙한 교과 내용에 새로운 명제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다시 보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정진호(2014)의 그림책 《위를 봐요!》를 활용한다. 사고 이후 높은 곳에서 거리를 내려다보게 된 주인공 수지의 시선에서 거리의 사람들이 작은 점처럼 보이다가, 한 아이가 위를 올려다보면서 관계와 장면이 변화하는 이 작품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 자체를 성찰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그림책을 사용하는 목적은 장애를 동정의 대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외형이나 조건으로 빠르게 규정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한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장애나 사고는 한 사람의 전 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은 아니며, 시선의 전환 활동은 한 존재를 특정한 조건이나 외형으로 성급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시 바라보게 한다.

‘느린 보기’에서는 제목과 결말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고 삽화를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거리 전체를 살피며 무엇이 보이고 무엇은 보이지 않는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관찰하게 한다. 이어 시선의 위치와 위에서 내려다보는 인물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 인물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다음 “위를 봐요!”라는 말의 의미와 인물의 생각을 추측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결말의 장면을 공개하여 무채색이던 거리와 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관찰하게 한다. 각 질문 뒤에는 약 10초의 기다림을 두어 학생이 첫인상에 따라 즉시 판단하기보다 충분히 보고 생각한 뒤 말하도록 한다. 이러한 설계는 스미스가 백장미단의 사진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서 인물과 표정으로 관찰을 점차 좁혀 간 사례에서 교수적 시사점을 얻은 것으로, ‘세심한 주의(attentiveness)’가 실제 참여 방식 안에서 구현되는 한 형태라 할 수 있다(Smith, 유은희 역, 2024: 144-150).

여기서 느린 관찰과 신학적 해석은 구분된다. 학생에게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면 어떨까”라고 묻는 것은 관찰의 질문이라기보다 이미 상당한 신학적 상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재구성안에서는 학생이 그림 자체를 충분히 관찰한 뒤에야 수업을 신학적 성찰로 이동시킨다. 시편 139:1-12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알고 살피신다는 성경적 관점을 살펴보고, 이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앞선 시선의 경험을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연결한다. 이 질문은 느린 보기의 일부가 아니라 관찰 이후 이루어지는 신학적 해석의 단계로 위치시킨다.

이어 교사는 창세기 1:27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를 설명한다. 그림책 활동만으로 학생이 인간 존엄의 신학적 의미를 스스로 도출할

것이라고 전제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이 특정한 능력이나 유용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사가 분명히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후 “법이 어떤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소중함은 사라지는가”, “말을 하지 못하거나 많은 것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한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III장에서 살핀 교과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진술을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보다 깊이 탐색한다.

이러한 ‘새롭게 보기’는 교과서의 인권 개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새로운 정의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가 이미 제시하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을 유지하면서, 학습자가 익숙한 인간 존엄의 진술을 다른 시선으로 다시 살피고 그 의미를 기독교적 인간 이해 안에서 해석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명제를 외우는 데 있지 않고, 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는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연결하는 데 있다.

3. 참여 방식 선택하기: 경청을 수업의 참여 구조로 만들기

What If Learning의 두 번째 국면인 ‘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가와 함께 그 배움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가를 묻는다. 교과서 124쪽은 인권 친화적 태도의 하나로 “친구가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말해도 잘 들어 준다”는 항목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재구성은 경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교과서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자기 점검의 대상으로 제시된 경청을 실제 수업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인간 존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짝 활동을 말하기-듣기-재진술-확인 구조로 설계한다. 먼저 A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B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은 뒤 “○○는 사람의 소중함이 …라고 생각합니다”의 형식으로 A의 생각을 정리한다. B는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A에게 다시 읽어 주고, A는 자신의 생각이 적절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다. 이후 역할을 바꾸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이름을 붙여 의견을 기록하는 활동을 넘어, 자신이 이해한 타인의 말을 다시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확인받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구조이다.

따라서 이 활동의 평가는 상대방의 내면적 생각을 ‘정확하게 맞췄는가’를 교사가 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며,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는 참여 절차를 수행했는지가 핵심적인 확인 대상이 된다. 경청은 이때 인권 친화적 태도에 관한 하나의 지식이나 규칙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함부로 대신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다시 확인하는 학습의 양식이 된다.

이러한 설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한 II장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타인의 말을 경청해야 그 사람이 존엄해지는 것은 아니며, 관계를 잘 수행하는 능력이 존엄의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이 이미 존엄한 인간이라는 이해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관계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청은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활동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는 비전이 실제 학생들의 참여 방식 안에서 드러나도록 한 설계이다.

4. 실천 재구성하기: 참여를 지탱하는 수업의 인프라

What If Learning의 ‘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는 앞선 비전과 참여 방식이 실제 수업에서 가능하도록 이를 지탱하는 시간·자료·상호작용·평가와 같은 조건을 재구성하는 국면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친절 한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것 자체를 실천 재구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과서의 자기 점검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인 친절을 정하는 활동은 배운 내용을 삶으로 연결하는 적용 활동이며, 실천 재구성의 핵심은 그러한 존중과 경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실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다시 짜는가에 있다.

본 재구성안에서는 그림책의 장면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자료의 사용, 질문 후 약 10초를 기다리는 시간의 배치, 짝의 말을 듣고 재진술한 뒤 당사자에게 확인받는 상호작용 절차, 활동지를 정오나 점수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형성적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 이러한 재구성에 해당한다.

교과서의 ‘인권 친화적 태도 점검하기’ 활동은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다. 학생은 8개의 항목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정한다. 그러나 인권 존중이 개인적 친절이나 시혜에 머물지 않도록 이후 활동에서는 이를 권리의 언어와 연결한다. 후속 인권 포스터 활동에서 학생은 이동권, 정보 접근권, 참여권, 평등권, 의견 표명권 등 생활 속 인권 사례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형상’, ‘시선의 전환’,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관점에서 사례를 다시 바라본다. 포스터에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자”와 같은 표현 대신 “누구나 ~할 권리가 있다”는 문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개인의 호의와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차이를 구분하게 한다.

이러한 확장은 인권 친화적 태도를 단지 ‘착한 사람이 되기’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돕는 개인의 태도는 필요하지만, 인권은 누군가의 선의가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개인적 실천은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 공동체의 환경과 제도적 조건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본 차시는 이후 단원에서 다루는 인권 침해의 발견과 해결 방안 탐색, 인권 보호 활동과도 연결된다.

평가 역시 별도의 결과 확인이라기보다 수업의 양식에 포함된다. 느린 보기에서 학생이 무엇을 관찰하고 어떠한 질문을 제기하는지, 인간 존엄을 자신의 말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경청 활동에서 듣기-재진술-확인 절차를 수행하는지, 자기 점검을 구체적 실천과 권리의 언어로 연결하는지를 활동지와 수업 관찰을 통해 형성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하는 평가는 학생에게 특정 신학적 문장을 동일하게 재현하도록 요구하기보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와 참여의 과정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수업의 마지막 8분 동안 학생은 ‘인권 친화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말로 다시 쓰고, “나는 ____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는 문장으로 자신의 다짐을 표현한다. 다짐을 작성한 뒤 교사는 “오늘 배운 마음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한 주가 되기를.”이라고 말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이러한 축복은 수업 끝에 기독교적 요소를 추가하는 별도의 의식이라기보다, 학습의 마무리를 평가에서 다짐과 보냄의 시간으로 재구성하는 교수적 실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천 재구성하기’는 특정 활동 하나가 아니라, 단계적인 자료 제시, 기다림의 시간, 경청의 상호작용 절차, 권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후속 활동, 형성적 평가와 축복의 마무리가 함께 이루는 수업의 인프라를 가리킨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인간 존엄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는 별도의 명제로 덧붙여지기보다 학생이 보고, 듣고, 말하고, 기다리고 관계 맺는 수업의 방식과 연결된다.

5. 재구성안의 예비적 현장 적용

본 연구의 핵심 활동은 2026년 6월 11일 초등학교 5학년 「법과 인권의 보장」 9~10차시(당일 6~7교시, 80분)에 예비적으로 적용하였다. 수업에서는 먼저 교과서 116~125쪽의 인권·헌법·인권 친화적 태도를 확인한 뒤, 《위를 봐요!》를 활용한 느린 보기, 시편 139:1-12와 창세기 1:27을 통한 신학적 성찰, 인간 존엄에 관한 경청 활동, 자기 점검과 실천 약속을 진행하고 다짐과 축복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수업의 실제 적용을 통해 재구성안이 교실의 시간 안에서 실행 가능한지와 활동의 순서를 예비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이 적용은 재구성안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가 아니며, 학생의 인권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적용을 근거로 존엄 인식이나 인권 친화적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예비 적용 당시에는 ‘하나님의 시선’ 발문이 느린 보기와 인접하여 배치되었고, 경청 활동도 짝의 생각을 기록하는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재구

성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세밀한 관찰과 신학적 성찰의 기능을 구분하고, 경청을 말하기-듣기-재진술-확인 상호작용 절차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개인적 친절의 결단 자체를 ‘실천 재구성’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러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시간·자료·교사의 반응·상호작용·평가 등의 수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실천 재구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V. 논의

1. ‘어떻게(How)’에 대한 기여

본 연구의 일차적 기여는 기독교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져 온 교수·학습의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재구성 사례를 제시한 데 있다. II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과 교과와의 통합은 주로 세계관과 교과 내용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스미스(Smith, 유은희 역, 2024: 307-309)는 세계관·이론에 관한 논의에 비해 실제 교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조약돌 양동이’의 비유로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이은실(2013)이 기독교 교육과정 개발·재구성 관련 석사학위논문 56편 가운데 특정 교수·학습 방법을 명시한 연구가 6편에 그쳤음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내용의 기독교적 재구성과 더불어 교수·학습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제를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수업 맥락에서 다루었다.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기독교적 내용으로 대체하기보다 What If Learning의 ‘새롭게 보기(seeing anew)-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를 중심으로, 인간 존엄에 관한 기독교적 비전이 학습자가 보고, 듣고, 기다리고 관계 맺는 방식과 이를 지탱하는 시간·자료·상호작용·평가의 구조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교과서가 이미 갖추고 있는 ‘인권 친화적 태도 점검하기’와 경청의 요소를 폐기하지 않고 실제 참여의 구조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재구성이 반드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활동을 다른 비전 안에서 다시 구성하는 작업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구성한 핵심 활동을 실제 5학년 수업에 예비적으로 적용하여 활동의 순서와 교실 안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문헌적 논의와 수업 설계 사이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다만 이러한 적용은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아니므로, 본 연구의 기여는 특정한 효과가 입증된 교수모형을 제시한 데 있다기보다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참고하고 후속적으로 검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 사례를 제안한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장유정(2023)이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축적하는 것은 신앙과 교과 통합을 실제 교수·학습의 차원에서 다시 탐색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접근은 인권교육 연구와도 접점을 갖는다. 전윤경(2023)은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 서술이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인권감수성 교육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인권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을 넘어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교과서의 규범적 출발점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 이해와 연결하고, 그 이해가 실제 교수·학습의 양식 속에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접근을 제시한다.

2. 인간 존엄 이해의 교수적 구현: 명제에서 참여 경험으로

둘째 기여는 인간 존엄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를 교수·학습의 참여 방식과 연결했다는 데 있다. III장의 분석에서 확인했듯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와 출생부터의 보편적 귀속을 인권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기 성찰로 연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부정하기보다,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진술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관한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보다 깊이 탐색하고, 그 이해가 다시 느린 보기·경청·기다림·권리의 언어와 같은 학습 참여의 양식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 존엄의 신학적 이해와 인권교육의 경험적 차원을 서로 연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참조한 *imago Dei* 논의는 인간의 존엄을 능력이나 유용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는 신학적 인간 이해를 제공하지만, 그러한 인간 이해가 실제 교실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라는 교육적 문제는 별도의 설계를 필요로 한다. 반면 그림책과 서사를 활용한 인권교육은 구체적인 인물과 상황에 대한 공감적·정서적 경험을 풍부하게 조직할 수 있지만, 기독교 학교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어떠한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차원을 위계적으로 나누기보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그 인간을 수업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가 상호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Blasi(1999)의 도덕심리학적 논의와도 접점을 갖는다. Blasi(1999: 1)는 도덕적 이해 자체가 곧바로 도덕적 동기와 행동을 보장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성숙한 이해를 지닌 사람도 그 이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자연스럽게 발생한 감정이나 친사

회적 반응 역시 그 자체로 곧 도덕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감정이 도덕적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대한 관심과 해석의 과정이 요청된다고 본다(Blasi, 1999: 13, 15-16 ; 이정훈, 2020). 이 논의가 본 수업설계의 효과를 직접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존엄에 관한 개념적 이해와 정서적 경험, 실제 참여와 행동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이론적 참조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설명만을 추가하거나 그림책을 통한 공감적 경험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차원이 수업의 참여 방식 안에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다. 느린 보기는 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도록 하고, 경청 활동은 상대의 말을 듣고 재진술한 뒤 당사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며, 자기 점검과 후속 포스터 활동은 개인적 친절을 권리의 언어와 연결한다. 수업의 마지막을 다짐과 축복으로 구성한 것 역시 학습한 내용을 교실 밖의 삶과 연결하려는 시간의 양식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의 존엄 인식이나 태도를 실제로 변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간 존엄에 관한 신학적 이해가 명제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학습자가 참여하는 방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교육적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독교 학교에서 공교육 교과서를 활용하여 신앙과 교과를 통합하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준다. 기독교적 통합을 별도의 경건 활동이나 성경 구절의 첨가에 한정하지 않고, 동일한 교과 목표와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학생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게 하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수업을 어떠한 언어로 마무리할 것인가를 신앙적 비전과 함께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적 교수·학습의 ‘어떻게’를 교실의 미시적인 선택까지 확장하여 탐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3.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 및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예비적으로 적용하였으나,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다. 2026년 6월 11일 초등학교 5학년 수업에서 재구성한 핵심 활동을 적용하여 활동의 실행 가능성과 절차를 예비적으로 점검하였지만, 학생의 발언이나 산출물, 인권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체계적인 연구 자료로 수집·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의 전문가 타당화도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이 학생의 존엄 인식이나 인권 친화적 태도를 향상시킨다고 결론 내릴 수 없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수업 전후의 인식 변화, 학생의 학습 경험과 산출물, 교사의 관찰 자료 등을 적절한 연구윤리 절차 아래 분석하여 재구성안의 교육적 의미와 한계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박경애·이경주(2020)가 그림책 활용 인권교육활동과 후속 인형극놀이가 만 5세 유아의 일부 인권인식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한 것은 그림책 기반 인권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접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과 활동, 측정 방식이 본 연구와 다르고 일부 권리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를 본 연구의 재구성안에 대한 효과의 근거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는 후속 경험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참고점으로 제한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두 종의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를 검토하였으나 이는 전체 검정 교과서를 대표하지 않으며, 교사용 지도서 역시 비상교육 자료에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분석과 해석은 연구자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분석의 신뢰성을 복수 연구자를 통해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인권 서술의 특징을 초등 사회과 인권 교육 전반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검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정 문서를 대상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 연구자 또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분석의 타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재구성의 직접적인 대상 또한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 전체가 아니라 ‘인권 친화적 태도’ 관련 핵심 차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의 설계가 다른 차시와 단원, 교과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신학적 재구성은 기독교적 신앙을 교육적 해석의 전제로 공유할 수 있는 기독교 학교의 맥락을 전제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존엄을 해석하는 관점으로 직접 제시하는 방식은 이러한 신앙적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 공교육의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설명이 다른 인간 존엄의 정초보다 보편적으로 우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신앙적 전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윈주의 사회에서 인간 존엄의 정초를 종교와 문화 간의 개방적인 대화 속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김용해(2003)의 제안도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럼에도 What If Learning이 제안하는 새롭게 보기, 참여 방식 선택하기, 실천 재구성하기의 관점과 그 안에서 활용되는 주의 깊은 관찰, 경청, 기다림, 상호 확인과 같은 교수적 실천은 신앙고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교육 맥락에서도 그 교육적 의미를 별도로 탐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이 다른 맥락에서도 동일한 의미와 효과를 갖는다고 미리 가정하기보다, 각 교육 공동체의 목적과 가치, 학생의 특성에 비추어 다시 설계하고 검증해야 한다. 기독교 학교에서 개발된 본 재구성안의 어떤 요소가 다른 교육 맥락에서도 공유될 수 있으며, 무엇이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 역시 후속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보고, 인권에 관한 개념적 이해에서 생활 속 존중의 태도로 이행하는 ‘인권 친화적 태도’ 핵심 차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분석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와 출생부터의 보편적 귀속을 인권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기 성찰로 연결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를 부정하거나 대체하기보다,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진술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관한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심화하고, 그 이해가 수업의 참여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스미스의 기독교적 교수론과 What If Learning의 ‘새롭게 보기(seeing anew)’, ‘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 ‘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를 재구성의 틀로 활용하였다. 《위를 봐요!》를 활용한 단계적인 느린 보기는 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주의 기울여 바라보도록 설계하였으며, 창세기 1:27을 통한 명시적인 신학적 설명으로 이를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인간 이해와 연결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이미 제시된 경청을 ‘말하기-듣기-재진술-확인’의 실제 참여 구조로 확장하고, 기다림의 시간, 자기 점검, 권리의 언어, 형성적 확인과 축복의 마무리를 통해 존엄과 환대의 비전이 수업의 시간·자료·상호작용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과 내용에 신학적 명제를 덧붙이는 데 머물지 않고,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학습자가 어떻게 보고, 듣고, 참여할 것인가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안하였다.

재구성한 핵심 활동은 초등학교 5학년 수업에 예비적으로 적용하여 수업 시간 안에서의 실행 가능성과 활동 절차를 점검하였다. 그러나 이 적용은 학생의 인권 인식이나 태도 변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효과가 입증된 교수모형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또한 두 종의 교과서와 비상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한 분석, 특정 핵심 차시에 한정된 재구성, 기독교 학교라는 적용 맥락 역시 본 연구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독교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덜 구체화되어 온 교수·학습의 ‘어떻게’를 인간 존엄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실제 수업의 수준에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재구성안에 대한 경험적 검증과 더불어 다른 단원과 교과,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변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현정 (2007). 칸트 철학에서 인간 존엄성의 문제. **칸트연구**, 20, 1-28.
- 김용해 (2003).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근거 짓는 작업에서의 문제들. **사회와 철학**, 6, 217-252.
- 박경애·이경주 (2020). 그림책 활용 인권교육활동을 통한 인형극놀이가 유아의 인권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23, 27-48.
- 박혜경 (2016). 대학 영어강독 수업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의 사례 연구. **신앙과 학문**, 21(2), 89-123.
- 설규주 외 (2026a). **사회 5-1**. 비상교육.
- 설규주 외 (2026b). **사회 5-1 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 유은희 (2023). 기독교적 교수-학습 모형 탐색: D. I.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신앙과 학문**, 28(3), 91-121.
- 유은희 역 (2024).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움**. Smith, D. I. (2018). *On Christian Teaching: Practicing Faith in the Classroom*. 이레서원.
- 이경건 (2018).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ginis Dei)’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신앙과 학문**, 23(4), 139-178.
- 이서영 (2023).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 읽기 방안 연구. **인권연구**, 6(1), 1-31.
- 이은실 (2013). 기독교 교육과정개발 및 재구성 관련 석사학위논문 분석. **신앙과 학문**, 18(1), 73-98.
- 이정훈 (2020). 감정과 도덕적 동기화에 대한 블라지의 관점 분석. **윤리교육연구**, 58, 241-280.
- 장유정 (2023). 기독교학교교사의 신앙을 통합한 가르침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79, 1-38.
- 전윤경 (2023). 권리변수를 통해 본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 초등 사회과 교과서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법과인권교육연구**, 16(1), 43-64.
- 정진호 (2014). **위를 봐요!**. 현암주니어.
- 한춘희 외 (2026). **사회 5-1**. 아이스크림미디어.
- 홍순원 (2015). 하나님 형상의 사회윤리적 기초. **신학과 실천**, 46, 649-671.
- Blasi, A. (1999). Emotions and moral motivation.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29(1), 1-19.
- Weithman, P. (2009). Nicholas Wolterstorff's Justice: Rights and Wrongs: An introduction. *Journal of Religious Ethics*, 37(2), 179-192.

‘무엇’에서 ‘어떻게’로: 데이비드 스미스의 기독교적 교수론에 기초한 초등 사회과 ‘법과 인권’ 단원의 핵심 차시 재구성

Reconstructing a Key Lesson in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Unit “Law and Human Rights”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Drawing on David Smith’s Christian Pedagogy

김수정 (한동글로벌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 사회과 「법과 인권의 보장」 단원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검토하고, 인권에 관한 개념적 이해가 생활 속 태도로 이어지는 ‘인권 친화적 태도’ 관련 핵심 차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두 종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고, 비상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보조 자료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교과서와 지도서는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와 출생부터의 보편적 귀속을 인권의 규범적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자기 성찰로 연결하고 있었다. 다만 왜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요청하는가에 관한 철학적·종교적 정초까지는 별도의 학습 내용으로 탐색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학교의 맥락에서 인간 존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관한 인간 이해와 연결하여 해석하고, 데이비드 스미스가 참여한 What If Learning의 ‘새롭게 보기(seeing anew)’, ‘참여 방식 선택하기(choosing engagement)’, ‘실천 재구성하기(reshaping practice)’를 중심으로 핵심 차시를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단계적인 느린 보기, 말하기-듣기-재진술-확인 의 경청 구조, 기다림의 시간과 형성적 확인, 개인적 친질을 권리의 언어와 연결하는 후속 활동, 다짐과 축복의 마무리를 수업의 참여 방식과 인프라로 설계하였다. 재구성한 핵심 활동은 실제 5학년 수업에 예비적으로 적용하여 실행 가능성과 활동 절차를 점검하였으나, 학생의 인권 인식이나 태도 변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검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구성이 교과 내용에 신학적 명제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엄에 관한 신앙적 비전이 학습자가 보고, 듣고, 기다리고 참여하는 교수·학습의 양식과 연결될 수 있음을 하나의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통해 제안한다.

주제어: 초등 사회, 인권교육,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기독교적 교수론, What If Learning, 수업 재구성